

01 교회소식

‘온 영’ 주제로 전국 기관장 교육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13 전국 기관장 교육'이 열려 온 영의 세 가지 증거에 대해 배우는 축복의 시간이 됐다.

02 생명의 말씀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야 한다.

03 기획특집

‘네펠림’과 ‘용사’의 비밀

지구창조, 에덴동산 등 창세기의 비밀을 속 시원하게 풀어 주는 이재록 목사의 창세기 강해 중 네펠림과 용사에 대해 소개한다.

04 간증

“주님을 참으로 만났어요”

재생 불가능한 사신경이 살아났다는 이춘범 집사와 온 가족이 권능을 체험하고 참 생명을 얻은 네펠림 간증 이야기.

# 만민뉴스

제589호 2013년 7월 7일 (주간)

##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온 영의 마음 이루겠습니다”

## 2013년 전국 기관장 교육 5,500여 명 참석



마지막 때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영적 장수를 양성하기 위해 열린 '2013 전국 기관장 교육'이 전 세계 만민 성도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마쳐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성도들은 영적 자신감이 더해졌으며 더 신속히 믿음의 반석을 지나 영의 마음, 온 영의 마음을 이룰 것을 다짐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2013년 전국 기관장 교육'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주강사로 해 '온 영'(히 10:22)이라는 주제 아래 강원도 홍천군 소재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진행됐다. 우리 교회는 구역을 중심으로 한 교구 조직과 기관을 중심으로 한 선교회 조직이 있다. 이번 교육은 남·여선교회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려 전국 기관장은 물론, 많은 주의 종과 교구 일꾼, 성도들도 참석해 함께 은혜를 나눴다.

첫째 날, 오후 1시 30분에는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 인도로 도착예배 및 성령충만 기도회가 있었다. 이 원장은 "기도 없이는 온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없다."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불같이 기도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인 온 영의 열매로 나올 것"을 당부했다. 본격적인 교육은 오후 7시부터 대강당을 비롯한 9개의 소강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진행됐다.

강사 이재록 목사는 첫째 날 교육을 통해 "신앙의 최종 목표는 온 영의 마음을 이루는 것이다. 온 영의 증거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며, 두 번째 증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이다. 매순간 무엇이 더욱 하나님 편에서 선인지를 분별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둘째 날, 오전 9시 30분에는 이희진 목사의 인도로 성령 충만한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와 사랑을 고백했다. 그 뒤 자신의 마음 깊이 내재돼 있어 스스로 깨우치지 못한 분야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진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 6시 30분부터는 강사 이재록 목사의 둘째 날 교육이 있었다. 전날에 이어 온 영의 세 번째 증거 '총성'에 대해 교육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변함없이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과 마음에 맞게 하는 총성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성도들을 실례로 개개인 온 영으로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채워야 할 분야들을 짚어 주었다.

셋째 날, 교육생들은 오션월드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교육에는 전국 지교회와 케냐,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벨기에, 싱가포르 등 해외 17개국에서 총 5,500여 명이 참석해 성도들의 뜨거운 영적 사모함을 엿볼 수 있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악을 모두 벗어버리면 영의 마음을 이루게 된다. 나아가 선과 사랑, 진리를 마음 가득 채우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온 영(살전 5:23)의 마음을 이룰 수 있다.

그동안 '믿음의 분량'을 주제로 열린 2011년 기관장 교육 말씀, '영'을 주제로 열린 2012년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며 기도와 금식으로 성결을 이루기 위해 달려온 성도들에게 이번 교육은 영으로 온 영으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작점이 됐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 우리의 열심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7~8)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 14:8) 고백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오직 주의 일에 힘썼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요. 비록 사자밥이 되고 칼로 목베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쁨으로 순교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귀한 순교의 피를 흘렸기에 로마 복음화는 물론, 세계 복음화의 기초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영혼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내보여야 할까요?

### 1.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를 기쁘게 해 주기 위해 열심을 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일을 찾아 열심히 행합니다. 예배와 기도 시간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사명을 사모하며 충성하지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열심 내기는 하는

데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성격 자체가 적극적이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해서 교회 생활에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믿음 있다고 인정받고 싶어 열심 내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분별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맡아 충성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열심 내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과 뜻에 맞춰 순종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신이 보기에 좋은 목표를 좇아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충성하면서도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며, 험하고 곳은일이라도 자원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합니다. 자신이 좀 불편하고 번거롭다 해도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 줄 방법을 궁구하며 낮은 자세로 섬기게 되지요. 때로는 선한 의도로 행한 일에 대해 애매한 말을 듣고 억울한 일을 겪는다 해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열심으로 더 뜨겁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 2. 어떤 상황에도 진실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내는 열심에는 변개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변개하는 마음이 있기에 한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뜨겁게 달려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은혜가 떨어지면 잘 보이지 않는 분도 있지요.

자신의 생각과 유익에 맞지 않으면 열심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이나 명예 때문에 점차 신앙생활에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또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열심 내던 모습이 사라지기도 하지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한 열정이 평

생 변함없었습니다. 얇은뱀이를 걷고 뛰게 하는 등 큰 권능을 행했어도 사도 바울이 얻은 것은 눈에 보이는 영광이나 당장 손에 잡히는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한다고 돌에 맞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릴 정도로 고난을 받았지요.

어떤 지역에서는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도 오히려 그로 인해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은 복음 전파를 못하도록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따라다니며 죽이려 했고 핍박했지요. 또한 애써 개척해 놓은 교회 안에 음행과 갖가지 죄악이 번지거나 성도 간에 분쟁의 소식이 들려서 깊이 근심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배신해 떠나는 일꾼들도 있었고 배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성도와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았는데 바울이 사사로이 쓸 것을 구한다고 오해를 받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는 어떤 고난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치고 낙심하지도 않았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하거나 ‘주님께 서 왜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며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는 ‘언제까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몸이 상하고도 정신이 들면 곧장 다음 지역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또한 매를 맞고 괴투성이 돼 감옥에 갇혀서도 깊은 밤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우렁차게 찬미를 올렸습니다. 감옥에 갇혀 직접 선교하려 다닐 수 없을 때에도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어 일꾼들과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했지요. 이처럼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심도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해도 결코 변함이 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3.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이 뜨겁게 사명을 감당한 것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자신을 구원하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했다고 해서 그에 대한 칭찬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하며 수고했다 해도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것이

라 여겼지요. 하나님 은혜가 자신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또 것처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로 돌렸습니다.

저는 질병으로 7년의 세월을 보낼 때에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짐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어머니조차 저를 보고 통곡하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효도라고 하셨습니다. 앞날에 대한 꿈도 소망도 사라지고 모진 목숨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단번에 고쳐 주셨고, 무엇보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가정의 행복과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 삶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로 저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됐고 시간과 물질, 아내와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지요. 4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양한 인생의 사연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권능으로 중한 질병을 치료받고 각종 어려움을 해결받으며 사랑하는 가족의 문제를 해결받은 경우도 많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여러분이 받은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자녀가 된 은혜이지요. 이러한 은혜 하나하나를 깊이 새기며 날마다 뜨겁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해 변개함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 예루살렘의 영광 중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 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사별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 ‘네피림’과 ‘용사’는 누구일까요?

매주 금요일이 되면 이재록 목사의 흥미진진한 창세기 강해 설교가 기다려진다. 창조주 하나님과 공간, 영계의 일들과 지구 창조, 에덴동산과 UFO, 공룡과 피라미드 등 수많은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기 때문이다. 그 중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과 용사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과연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본다.

## 에덴동산에 거하는 생령 아담의 후손들과 범죄한 아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창조하신 후, 흙으로 첫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령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풍요로운 에덴동산을 창설해 생령 아담을 이끌어 들이신 후,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셨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축복하신 대로 생령 아담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신 하와와 함께 무수

한 세월 동안 에덴동산에서 수많은 후손을 낳으며 생육하고 번성했다. 또한 에덴동산과 지구를 기업으로 받아 정복했으며 만물의 영장답게 모든 생물을 다스렸다.

한편, 창세기 2장 16~17절에 하나님께서는 생령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령 아담은 온전한 영이 아니기에 무수한 세월이 흐른 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생령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며 에덴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을 뿐 아니라 지구에 속한 모든 것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에덴동산의 생령 아담은 그의 후손들과 함께 비행체를 만들어 자유롭게 지구를 오고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생령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생령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니 그의 후손들도 제한적으로나마 이 땅에 오고 갈 수밖에 없었다.

## 네피림, 범죄한 아담과 함께 이 땅에 정착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

에덴동산에서 살던 생령 아담의 후손들 중 일부는 지구에서 살아가는 아담을 지켜보면서 동경하는 마음이 생겼다. 자신들이 사는 에덴동산의 풍요로운 삶이 훨씬 좋은데도 범죄한 아담이 사는 이 땅의 삶이 새롭고 좋아 보였던 것이다.

특히 아담과 하와가 직접 낳은 자녀들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다. 그래서 에덴동산의 삶을 뒤로 하고 스스로 이 땅에 내려와 정착했다. 당시 이 땅의 수명이 보통 900세 정

도였기에 그들은 이 땅에 내려오면 에덴동산에서처럼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에덴동산에서처럼 아담과 하와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줄 알고 이 땅의 삶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처럼 생령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이 땅에 정착한 남자, 곧 ‘하나님의 아들들’은 에덴동산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질서를 좇아 생육하고 번성했다. 범죄한 아담이 이 땅에서 낳은 후손들 중 여자,

곧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들의 후손이 바로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 네피림이다.

‘네피림’은 그 외모가 매우 출중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氣)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의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다. 그들의 아버지들은 이 땅을 선택해 정착했지만 죄에 깊이 물들지 않았기에 그들이 가진 좋은 기질 곧 에덴동산 사람으로서의 뛰어난 면을 자녀들에게 많이 전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용사, 에덴동산을 오가며 정욕을 좇아 살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

범죄한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 생령 아담의 후손들은 조상 아담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싶어하며 매우 궁금히 여겼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을 따라 이 땅에 정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에덴동산과 지구를 오가며 정욕을 좇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었다.

이 땅에 정착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에덴동산과 지구를 오가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변질되고 죄에 물들어 문제를 일으켰다. 그들은 온전한 영이 아니었기에 창세기 6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등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동을 했다.

더욱이 이들의 문란한 행동은 에덴동산

과 지구를 오가며 이 땅의 질서는 물론이요, 에덴동산의 질서까지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는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한탄하시며 근심하셨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이십 년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공홀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시기에 예고없이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일차적으로 경고를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령 아담의 후손들로서 원래 빛의 영역인 에덴동산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가 이 땅에 내려와 정욕을 좇아 죄악을 일삼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됐다.

이처럼 지구와 에덴동산을 오가며 정욕을 좇아 살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이 바로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 ‘용사’이다. 그들은 어디에서나 눈에 띄었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다. 또 신체 조건이나 지혜 등 탁월한 면도 있어서 그들 중에서 고대에 유명한 용사로 나온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후손들이 대대로 탁월한 기질을 갖고 태어날 수는 없었다. 그들의 2세대도 급속히 육에 물들어 ‘육체의 사람’이 됐기 때문이다. 결국 3대째부터는 이 땅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됐다.

그 후 이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전설적인 인물’로 남게 됐고, 대홍수 심판 때에 멸절되고 말았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7**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3.7.7~7.13  
July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Words of Life

- 은혜 - 2012 백주년사절
- 온전한 심일조와 헌물 4-5
- 1차 영혼육 1-3
- 사랑장 8-12
- 지옥 6-10
- 창세기 강해 29-33, 100
- 위로부터 난 지혜 6-9

**GCN TV 설교** GCN TV Sermon

- 육과 영 2-6 (이수진 목사)
- 희생 (이미영 목사)
- 새 예루살렘 2 (신동초 목사)
- 영의 세계 (김승신 전도사)
-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 (정준영 형제)
- 'GCN TV특강' - 십자가의 도 2 (정구영 목사)

**간증 프로그램** Testimony

- 크리스천 투데이 2, 5, 43-45, 47, 48
- GCN 간증 스페셜 2, 3, 5, 20-22

**찬양 프로그램** Praise

- GCN 파워프레이즈(2) 1-5, 17, 18
- 찬양과 경배 (3) 28-30, 33, 34, 68, 69
- GCN 금요찬양 스페셜 21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 “재생 불가능한 시신경이 살아나 이제는 작은 글씨도 또렷이 보입니다”

이춘범 집사 (3세대 30교구)

2006년, 저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전류가 흐르고 있는 물웅덩이에 빠져 전기 감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측 눈 시신경에 손상을 입었지요. 유전적으로 시력이 약한데다가 시신경까지 손상을 입으니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호등 색상 구분도 안돼 길을 건너는 것이 조심스러웠고, 길을 걷다가 사람들과 부딪치거나 무언가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지요.

2009년 8월, 병원에서 ‘시신경위축’으로 진단돼 시각장애인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시신경이 위축돼 시력 감퇴,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저는 시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절망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후 어두운 제 인생에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바로 설경자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넘치는 만민중앙교회로 인도받은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크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어릴적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얼마나 헛된 신앙생활을 했는지 철저히 깨닫게 됐지요.

이후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 생활은 물론,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 행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러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교회 출석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10여 년 된 양 무릎 관절염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랜 통증에서 벗어나니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저는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열심히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설교 말씀을 정리하는 등 하나님 뜻을 더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3월 31일 부활주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시간에 단에 서신 당회장님을 바라보는데, 그 위로 강렬한 빛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 눈이 부셔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지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도 너무나 밝고 환한 빛들이 보였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날부터 돋보기 없이도 성경의 작은 글씨가 또렷이 보이는 것입니다. 신호등 색상이 구분되니 길을 건너는 것도 편안해졌고, 예전과 달리 직장 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생 불가능한 시신경을 다시 살리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팔의 외진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2002년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에 저의 교회생활은 일종의 친목모임과 같았지요.

그런데 2005년 버빈드라 라이 장로님을 통해 네팔만민선교센터(담임 이해천 목사)를 알게 된 후 저의 신앙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만민선교센터의 첫 느낌은 아주 깨끗했습니다. 또 성도들이 GCN 방송을 통해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습이 무척 행복해 보였지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하며, 죄를 버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는 영적인 말씀에 충격을 받았지요. 이러한 말씀들을 더 알고 싶어서 이재록 목사님의 대표 저서 『십자가의 도』를 읽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므로 우리 죄를 대속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으며, 죄가 없는 성결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그 후로 더욱 말씀이 사모됐습니다.

2007년에는 만민국제신학교 총장 정구영 목사님이 네팔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모함으로 참석했

# “온 가족을 치료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간 바들 라이 집사 (네팔만민선교센터)



간 바들 라이 집사(맨 왼쪽)와 아내 산티 라이(앞줄 왼쪽), 아들 조슈아 라이(아내 뒤), 여동생 가족과 처제들  
이러한 당회장님 설교를 GCN 방송을 통해 계속 듣고 깨우쳐가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게 됐고 건강도 되찾았습니다. 저는 호흡기 질환인 백일해와 통풍, 위장 질환, 두통, 천식, 28년 된 고질적인 알레르기 등 많은 병을 앓고 있었지요. 그런데 GCN 방송을 통해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고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료받은 것입니다.

온 가족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아내 산티 라이는 천식과 두통을, 아들 조슈아 라이는 백일해를 치료받았지요.

한번은 장모님께서 자궁경부궤양 수술을 앞두고 건강이 더 악화돼 이해천 목사님이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행 19:11-12). 그러자 즉시 건강은 호전됐고, 병원 재검사 결과 수술할 필요도 없었지요. 할렐루야!

이처럼 사랑의 주님께서서는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치료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네팔만민선교센터 직원으로 축복해 주셨지요. 저는 교회를 관리하며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참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회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룡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양만민교회 충북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무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미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강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필포동 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